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기불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권중서, 용민숙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 FAX/ 031)257-1083 • http://www.paragate.org • E-mail : budsos@paragate.org

백신에게 듣는다(마흔사홉번째)

대진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현대불교와 불자의 자세
- 일시 : 불기2551(2007)년 6월 16일(토) 14시30분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 법당

[대진스님약력]

- 동국대 행정대학원 수료
- 천태종립 금강대학불교과 2년수료
- 전국불교 포교사대학 수료
- 인왕사에서 덕화종 원장 박석천 큰스님 사제 특도
- 중앙승가대학 불전 국·역 연구원 2년 수료
- 경기 광주경찰서 경승실장 역임
- 현 탑선사 주지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역임

6월 사찰문화 답사

서암정사→벽송사→법계사→
천왕봉→대원사



■ 일 시 : 2007년6월 23일(토) ~ 6월 24일(일)

■ 출발지 : 6월 23일 오전 6시 경기불교문화원앞

■ 동참금 : 8만원

(숙식/간식/여행자보험/사찰입장료포함)



6월 초

불기2551(서기2007년)6월 (통권 제39호) / 매월 1일 발행(월보)



권두선

경기불교문화원의 재도약을 추진하며

경기불교문화원장/진철희



연두색 잎새들로 우거진 팔달산 산허리위에 뾰족하게 나와있는 서장대를 보면서 세월의 빠름을 보고 있습니다.

벗속에서 치러진 초파일 행사를 여법하게 마친 것이 엊그제인데 벌써 유월의 창가에서 잿빛하늘과 녹음진 산야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경기불교문화원 가족 여러분!

우리 경기불교문화원이 개원한지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한 생각이 미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란 나도 없는 것을 하물며 내 소유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사슬에 밭이 둑여 내 아들 내 재산 찾다 빈손 털고 돌아선다.” - 경암화상 장경시 -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정성이 조금만 더 보태진다면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기꺼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겠다는 것은 본인의 뜻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재가불자들의 보금자리가 없어서 동가숙서가식 할 때 홀륭한 법당을 쾌적하여주신 김태제 이사장을 비롯한 뜻있는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경기불교문화원이란 재가불자들의 수행공간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홀륭한 도량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불교문화원을 재도약 하여 이 지역사회의 불교문화의 전달자의 주역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남이 아닌 나를 돌아보며 지난날의 타성과 나태의 깊은 높에서 박차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경기불교문화원 불자여러분!

그동안 각계 각층에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이제 법인설립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하려고 합니다.

경기불교문화원이 법인으로 발돋음하려는 이유는 지역사회는 물론 교계 안팎으로 공신력을 넓히고 더 전문성과 조직력을 갖고 불교문화사업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뜻있는 일에는 많은 분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큰힘이 됩니다. 부디 경기불교문화원이 새로운 이정표가 될 법인설립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하여주실것을 굳게 믿습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는 희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이제는 경기불교문화원 가족들이 이제는 이 시대, 이 지역의 중심에 서서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경기 불교**

부처님 말씀(15)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를 깊이 알아서 죄없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죽이게 하지 말라.

- 법구경 129 -

All are afraid of the stick, all fear death. Putting oneself in another's place, one should not beat or kill others.

- DhammaPada 129 -



변호사 조 복 행

031) 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2

전국 꽃배달 전문. 세류 꽃 직매장

대표 : 이태호
전화 : 031-224-2221, 235-9293
Fax : 031-224-2232



삼보사찰 담사기

조계종포교사/혜도/어윤식

송광사는 수원포교당거사회와 통도사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수련회, 해인사는 혜암스님 다비식 및 포교사단8재계 수계식 행사에 개별적으로 기본적은 있으나, 1박2일 삼보사찰만 기본적은 없다. 올해는 10살된 이들과 함께 가려고 일찍 신청을 하였다. 24일 아침 자명종소리에 잠에서 일어나 아들을 깨워 이천 집에서 승용차로 운전하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도로근처에 있는 카센터에 수리를 맡기고 급히 렌터카기사를 연락하여 경기불교문화원 앞에 09:30분에 도착하였다. 10:15분에 리여행사버스가 수원 출발하여 16:25분 송광사 도착하였다. 먼저 송광사박물관 구경을 마치고 저녁공양 하였다. 그 후 범종각에서 스님들이 법고 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리고 대웅보전 대중스님 30여분과 함께 저녁예불을 드릴 때 박진감과 우렁찬 목소리에 신명이 저절로 났다.

송광사는 신라말 혜린 선사가 길상사란 이름으로 창건했다. 송광사는 고려 명종때 한국불교를 중흥시킨 보조국사 지눌을 맞아 급성 장했으며, 지눌아래 송광사는 16명의 국사를 배출하였다. 국사전은 국보56호 비롯하여 현재 27점 문화재로 보유하고 있다. 송광사는 제21교구 본사이고 조계총림으로 승보사찰로 지정되어 있다.

송광사에서 03:30분 새벽예불을 마치고 아침공양을 맛있게 먹고 07:20분 출발하여 경남 양산 영축산 통도사에 10:15분에 도착하였다. 통도사는 제15교구 본사이고, 영축산에 위치해 있으면 불보사찰로 지정되어 있다. 통도사 유래는 당나라에 수도를 떠한 자장을 사가 석가여래 진신사리를 모시고 와서 선덕여왕 말년(646년)개창을 하였다. 대웅전안에 불상을 모시지 않고 불단만을 마련해 놓고 대웅전 뒤에는 금강계단에 모신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받들고 있다. 문화유산 84점을 가지고 있다. 그곳에는 통도사 박물관에는 말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장보살탱화를 전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처님 생애를 볼 수 있는 팔상성도를 볼 수 있었다. 부처님께 최초 공양을 한 사람은 목동소녀 수잔타이고, 부처님 마지막으로 공양을 올리는 사람은 대장생이 춘다가 올렸다. 마지막으로 공양올린 상한음식을 먹고 부처님은 피똥을 싸고, 구토를 하였다(결국 열반에 드셨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춘다를 극형에 처할 것을 간청을 드렸으나 부처님은 이것을 물리시고 춘다를 마지막제자를 받아 들렸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부처님 위대한 자비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되었다. 우리도 조금이라 남을 생각을 할 수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박물관 구경을 마치고, 적멸보궁(대웅전)삼배를 드렸다. 사찰순례를 같이온 불자님들과 같이 부처님사리가 있는 계신 금강계단주위로 우요삼잡을 하였다. 통도사 15:00시 출발하여 17:00 해인사에 도착하였다.

일주문 앞에 연락을 받고 나오 사찰안내원에게 장경각대해 설명을 듣고 난후, 해인사 공양 간에서 저녁공양을 맛있게 먹었다. 가야산 해인사는 제12교구 본사이고, 법보사찰이다. 해동 화엄종의 초조의상대사(625~702)의 법손인 순응 화상과 그제자인 이정화상 신라 제40대 애장왕 3년(802년) 10월16일 창간하였다. 화엄경 주불로인 비로자로부처님 모시고 있다. 대웅전이 아니라 대적광전

이다. 해인사 경판고에는 팔만대장경(고려대장경판) 몽골의 병란을 맞아 국가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는 불심으로 16년간 제작된 81,258매(전부 5천만자)로 되어 있다. 국보52호 지정되어 있으면, 세계문화유산(유네스코 제463호)등록 되어 있다. 해인사는 다른 사찰과 다르게 어린이 눈높이 맞는 디지털영상자료실 있어서 DVD영상을 통해서 해인사역사 및 현재까지 모습들을 영상으로 볼 수가 있어서 좋았다.

장경각 바닥재는 소금, 숯, 석회, 질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해충 및 쥐의 피해 없어서 756년 유지하여 온 것 같다. 다시 한번 조상의 지혜를 볼 수 있었다.

고려시대 어려운 시기때 맞다 "이규보 문집「동국이상문집」, 1237년 「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 "지난 현종때 거란이 쳐들어왔다. 그 때 대장경판을 새기 시작했더니, 거란이 스스로 물러났다. 어찌 그때만 물러가고 지금은 뭉고는 물러가지 않겠는가!!!부처님 위신력을 통해서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였다. 우리도 남북이 분단되어 57년 세월이 지나고 있다. 현재 해인사에서는 남북통일 염원하는 동판대장경판을 불사를 하고 있다 우리시대 살고 있는 온 국민 소원인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 봄이 어떠한가?"

1박2일 삼보사찰을 무사히 마쳤다. 출발은 장애가 있었지만 부처님 가피로 구름이 걷히고 밝은 태양이 솟아올라 부처님 원력과 자비를 느낄 수 있었다. 시방세계 항상 계시는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마하빈야비라밀. 결기
불교

현대트랜스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사다리
031) 297-2000 / 011-733-1985

FILA 동수원점

대표 : 이명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5-5 (밀레니엄프라자 103호)
TEL : 031) 205-4311 H.P : 011-345-6887



2월 법문

불교신앙의 본질

금강선원회주/활안스님



이름이나 모양에 끄달리지 말고 자연스런 불자로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모든 사상은 일불제자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은 기도방법이 아니고 마음다스림이 중심이었어요.

부처님이 인도사람이니까 더위를 잘 이기려면 호흡조절이 필요하니까 요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점잖은 방법을 개발한 것이 마인드콘트롤이라 한 겁니다. 마음이란 원래 지.수.화.풍 사대로 만들어진 눈.귀.코.혀.몸이 붙어 색.성.향.미.촉.법이 서로 인연속에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작용이 어느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중국에 천태지자대사가 관찰하다보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흘러가니까 나쁜 것은 스톱해야 하니까 “지” 좋은 것은 관찰해야하니까 “관” 그래서 천태지관법선이 만들 어진 겁니다.

사람이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은 흐르는 마음도 잘 관찰할 수 있지만 포악하고 성질이 나쁜 사람은 지속성이 부족해서 망아지를 매어놓듯 매어놓지 않으면 버릇을 고칠 수 없다해서 화두선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화두는 상승근기에는 필요치 않아요, 달마대사, 육조혜능도 화두를 공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후대에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정신통일을 하려니까 할 수 없이 화두법이 나온거에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자등명, 법등명하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등불로 알고 법을 등불로 알고 살아라” 라구요. 저는 이 몸이 법당이고 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셨다고 판단했어요. 법당을 잘 꾸며야 마음이 편할 것이고 몸뚱이도 병이 들거나 정신이 이상하면 행복하지 못하듯이 건강한 법당을 가지려면 부처님 계율만 잘지키면 튼튼한 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즈음 방생들은 많이 하는데 첫째, 나를 내 몸을 방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독한 술을 마셔서 세포를 놀라게 하고 분에 넘치게 운동을 해서 또는 화를 내서 이 몸을 잘못 운영하고, 물 한 방울에 팔만사천 생명체가 살아있다고 하는데 이 몸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함부로 해서는 결코 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몸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것이 자등명이에요.

“이 몸이 부처다” 마음은 원래 형태가 없지만 온갖 것을 만들어 내는 묘한 작용을 하는 곳이라 그래서 항상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을 점검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께서 일생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위빠사나입니다. 요가는 불교이전부터 나왔던 것이고, 부처님 당시 여러 가지 선법이 있었지만 위빠사나 관법은 팔을 올리면 올리고, 내리면 내린다, 걸으면 걷는다, 밥을 먹으면 먹는다, 항상 현장에서 점검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나, 놀 보고 있으니 절대로 실수가 있을 수 없죠. 전.후.좌.우 살피면서 조용히 살아가는데 뭐 그리 급한 일 있습니까?

핸드폰 나오니까 더 바빠져서 밤낮 없이 기계의 노예가 되어 뇌를 세계적으로 쉬어주게 하는 것이 명상이랍니다. 명상도, 종합적인 요가도, 중국의 단도, 마인드콘트롤도, 위빠사나도, 간화선도 중생 근기에 맞게 지도하면 피로한 뇌는 쉬어주고 잠자는 뇌는 깨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아는 이는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기 몸을 조절할 줄 알고 자기 몸을 조절할 줄 아는 이는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어요. 철저히 잘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불교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영리한 사람이 잘사는것이 아니라 덕이 있고 공을 쌓고 복을 짓는 사람이 잘사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음식을 갖고 불교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나 부처님 당시에는 음식에 대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탁발을 해서 끼니를 해결하셨으니까요.

마음공부라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능력에 따라 수행을 해서 마음속으로부터 대자대비한 마음이 나서 남에게 음식을 대접하더라도 내가 배고풀 때 먹었던 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부처랍니다. 문제는 아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실천하는 데 상을 내서는 안됩니다.

무주무상 무착한 마음으로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사회를 보살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따라 힘 따라 자기집안을 불당삼고, 그것이 확대되면 국가가 불교요, 국민이 승가요, 그것이 확대되면 세계가 한곳이요, 만민은 동체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부처님의 본질은 이렇게 해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경기 불교**

2,3,4,5월 후원회비 내주신 분들 (7,499,060)

정성어린 후원금 감사합니다.

김태제, 진철희, 권중서, 양재홍, 장명순, 윤광숙, 이기원, 염규용, 조권형, 장용집, 흥인숙, 최명길, 이기순, 이선우, 김영희, 이대곤, 조창윤, 진주범, 윤영무, 정무근, 이상범, 강재수, 김기현, 구광국, 이임성, 김말수, 김준옥, 안영찬, 이영옥, 최정자, 김영동, 박선현, 김은주, 이태순, 김용필, 진상범, 민춘홍, 조명숙, 이남덕, 정해영, 정효진, 김순옥, 김준호, 양준영, 송경주, 최숙련, 양희선, 박진배, 조정자, 김경수, 이병일, 조병희, 배민한, 양정례, 심화식, 진기홍, 조남종, 정현숙, 차용희, 이상님, 정경화, 서의호, 박영희, 조성남, 함대식, 장영남, 어윤식, 정재안, 신윤식, 박홍근, 안병선, 박상우, 이대병, 장선희, 박정미, 장상덕, 안창호, 이경옥, 이사현, 김동주, 주인수, 이경원, 구상민, 이응우, 박종삼, 이수교, 김묘정, 김혜자, 신연자, 손용식, 양부자, 이응우, 이미란, 배정희, 박정자, 공석남, 서상열, 김재숙, 이복희, 성무스님,



목탁소리

신보왕삼매론

와

生

2.
3.
7.
4.
28.

삼막사 주지/성무스님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에 경건히 머리 숙이옵나니 당신은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는 신의 뜻이나 운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짓는 업의 과보임을 설하시어 스스로의 의지로 자기 인생을 힘차게 열어나가게 하옵니다. 저희들 어린 무리는 지금까지 술한 종교와 사상의 어지러움 속에서 갈 길을 못 잡고 방황하더니 이제 당신의 가르침을 만나 진리를 깨닫고 괴로움을 떠나 인류에 봉사 할 참다운 길을 발견하였습니다. 덧없는 목숨에 고귀한 삶의 가치를 주게 된 이 환희, 이 기쁨을 무엇에다 견주리까.

부모님 슬하 같은 당신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저희들은 이제 외롭지 않사오며,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참회할 확실한 의지처를 찾았나이다. 소원이 있을 때마다 당신을 부르리니 그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번뇌를 여위어 주시옵소서.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로써 성인이 말씀하시되「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하셨느니라.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장애속에서 해탈을 얻으라」하셨느니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하셨느니라.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하셨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 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하셨느니라.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덕을 베푸는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하셨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돋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것이니, 이래서 부처님께서는 저 장애 가운데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도는 안정에서 생기고, 명은 화창에서 생기나니,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사용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이를 가까이 하라.

▣ 이익 없는 말을 실없이 하지 말고 내게 상관없는 일을 부질없이 시비하지 말라.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이를 받들며, 지혜로운 이, 미거한 이를 밝게 분별하여 모르는 이를 너그럽게 용서하라.

▣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말라. 남을 손해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을 의지하면 도리어 재화가 따르느니라.

불자야! 이 글을 읽고 낱낱이 깊이 새겨서 다같이 영원을 살아갈 지어다. 불교



양재홍 치과의원

사무실 031) 241-1004 / 원장실 031) 248-1616

수원시 팔달구 지동 427번지

한방갈비 전문점 고향숯불갈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 256-0339 H.P : 016-425-4896



사찰답사

꽃길따라 다녀온 사찰순례

사찰답사반원/신영주

어디를 가든 흰색, 보라색, 분홍색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주는 기도발 확실히 받는 적멸보궁을 다녀오는 행운의 달 인것 같아.

법홍사, 정암사, 적조암은 불교와 인연을 맺은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제야 인연이 닿은 곳이다.
수원에서 출발한 우리는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영월 정암사,
참 단아하고 편안함을 준다는 표현이 어울린다는 표현이 좋을 정도로 예쁜 보살 같은 사찰이다. 천년고찰다운 세련되지 않았지만 촌스럽지 않은 많은 이의 쉴 공간이 제공 되는 것 같다.
내가 반한 이유는 또 한가지, 어젯밤부터 고장난 핸드폰 때문에 가슴앓이를 했는데 정암사에 갔더니 글쎄 저절로 고장수리가 됐다는 사실은 부처님은 역시 내가 어떠한 고민거리가 있는지 알고 가피를 내리시어 먼 거리를 새벽부터 서둘러온 정성에 보답인 양 나를 기쁘게 해주었다.

탑돌이 할 때는 마음속으로 “부처님 좋은 인연으로 또 오게 해주세요” 합장하며 탑돌이를 했다.

법당에서 덕행스님의 법문은 나를 돌아보게하는 종교는 많은 가르침의 스승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아쉬운 마음을 정암사에 두고 적조암으로 향했다.

적조암은 이름 자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가고 싶었던 암자인데 가는 길은 운동이 부족한 나한테는 만만치 않은 산행길이었다.

암자로 가는 길은 인내심이 필요한 곳이었다.

자장율사가 열반하였다는 곳을 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어느 보살님은 짹퉁불자, 나이롱 불자라며 우스개소리하며 지친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암자는 옆집에 온 기분같은 편안함 그 자체였다.

예전 절터에 만자를 짓고 30년을 계신다는 스님은 우리에게 많은 설명을 해주었다. 많은 기를 받아가라는 말에 욕심껏 기를 받아가지고 바쁜 일정 때문에 발길을 옮겼다.

법홍사 가는 길을 말 그대로 환상 그 자체, 제일 멋있는 곳에 내가 침벌라 서 짐해놓고 시간 있을 때 와서 사가기도 했다는 말에 뒷 자석에 앉은 식구들은 깔깔깔..

법홍사에 도착하니 중창불사땜에 약간은 어수선했지만 천년고찰을 올 수 있는 만겹의 인연공덕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용기를 내서 적멸보궁으로 향했다.

적멸보궁에 도착하니 역시 나는 짹퉁불자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불심이 약했던 나를 완성할 정도로 환희심이 일어났다.

내가 진정한 불자라면 열심히 기도정진하자 라는 마음자리 내고 내일부터는 정말 기도하자 하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4월 사찰순례는 그렇게 끝났다.

항상 구수하고 해박한 지식을 전해주는 권법사님 고맙습니다.

항상 좋은 곳과 인연닿게 해주시는 원장님 고맙습니다.

항상 공양물을 준비해주는 배려를 잊지않는 용간사님 맹큐,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다녀오는 사찰순례팀 고맙습니다.

모두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다음 달에는 봉정암인거 아시죠?

그때 또 만나요.. 성불하십시오. 경기 불교



기본교리 교육생 모집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개월, 5만원)
- 지도강사 - 전문포교사
- 내용 - 부처님의 일대기와 사찰구조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규용
TEL. 031) 212-0033
H.P 018-313-3838



사랑방

경기불교 문화원 소식

경기불교소식

● 백인에게듣는다(마흔 일곱번째)

불기2551(2007)년 2월 10일(토) 오후 3시 본원 큰 법당에서 성정스님의 “기도와 발언”을 주제로 법회가 있었습니다.



● 백인에게듣는다(마흔 여덟번째)

불기2551년 4월 28일(토)오후3시 본원 큰법당에서 성무스님의 “교화와 불교”를 주제로 법회가 있었습니다.



● 3월 사찰답사

(월정사,상원사,적멸보궁)
3월 사찰답사는 월정사,상원사,적멸보궁에 다녀왔습니다.



● 4월 사찰답사

(정암사, 법흥사, 적조암)
4월 사찰답사는 정암사, 법흥사, 적조암에 다녀왔습니다.



● 5월 사찰답사

(백담사, 영시암, 오세암, 봉정암, 신흥사)
5월 사찰답사는 부처님 오신 달을 맞이하여 적멸보궁인 봉정암에 다녀왔습니다.



● 수원 연등축제 참석

수원시불교연합회(회장:대현스님)에서는 불기 2551년 5월 19일 부처님오신 날 봉축법요식을 실시하였으며 본원에서도 진철희 원장님과 회원들이 연등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 701 전차대대 봉축법요식

불기 2551년 5월 20일 제17사단 전차대대 701대대에서 봉축법요식을 거행하였습니다. 100여명의 많은 군인들이 동참하였습니다.



●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불기 2551년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이 경기불교문화원 대법당에서 있었습니다. 김태제 이사장님, 진철희 원장님과 이사님들,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법공양, 공로자표창, 관육식에 이어 연등스님 법문 등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 제 6회 정기총회 및 결산보고

3월 17일 경기불교문화원 대법당에서 제 6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한 감사보고, 금년도 예산보고 및 임원개선이 있었습니다.

항 목	수 입	항 목	지 출
이 월 금	528,395	인 건 비	22,548,000
후원회비	28,749,089	행 사 비	4,339,340
보 시 금	7,654,000	회 보	7,643,938
강 좌 비	9,990,000	운 영 비	17,748,903
사찰답사	18,415,000	사찰답사비	15,830,280
기 타	11,101,707	기 타	7,708,440
계	76,438,191		75,788,901
잔 액			649,290

● 선맥 따라잡기 순례

(달마에서 혜능까지)

- 일시: 2007년 8월 5일~ 8월 12일(7박8일)
- 일정: 달마→혜가→승찬→도신→홍인→혜능대사→정주→낙양→무한→천주산→황매현→광주→소관→광주→인천
- 비용: 1,150,000원
- 인원: 20인 이내(선착순) - 마감 : 7월 17일까지

- 베스트 불서 10권 -

- 벼랑 속 이야기 (동학사편집실) (운주사)
- 하루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최만희편자) (운주사)
-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법정) (조화로운삶)
-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숲)
-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청견) (붓다의 마을)
-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과경) (불광)
- 염불수행입문(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법륜) (정토)
- 오체투지(한경혜) (작가의 집)

* 3월, 4월, 5월 회보는 본원 사정으로 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하반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3~5개월 과정

과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교 강좌	불교의식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6/25개강
	기본교리	전문법사	2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6/27개강
	위빠사나	이종숙	20명	15주 80,000원	법문, 경행, 좌선, 면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경전강좌	지목스님	20명	8주 80,000원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참선법회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수시
	불교미술의 이해	권중서	20명	3개월 90,000원	한국 불교미술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노래교실	김혜은	20명	3개월 무료	찬불가	매월 셋째주 토요일 (법회후)	수시
	불교상담대학	스님및법사	40명	4주 50,000원	불교상담 전문인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문화 강좌	요가	이수현	20명	3개월 90,000원	웰빙요가(주2회)	매주 월/수요일 오후 7시	수시
	단월드 (단전호흡)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전호흡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6/26개강
	다도기초	홍인숙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다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6/27개강
	수지침	박민선	20명	3개월 90,000원	수지침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수시
	중국어회화	안미영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중국어 회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0분	수시
	영어회화	최영혜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영어교실	매주 수요일 오후2시	수시
	경락	고칠성	20명	3개월 90,000원	한방경락/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7시	수시
초청 강좌	백인에게 듣는다	대진스님	100명	무료	“열린법회”	6월 16일(토) 오후3시	매월
	사찰환경 답사반	권중서	40명	80,000원	서암정사, 벽송사, 법계사, 천왕봉, 대원사	6월23일(토) 오전6시 (1박2일)	매월
산행상담	가정상담 · 불교교리				☎ 031-251-1083		

■ 회원가입안내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등”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본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중등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이나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TEL.031-251-1083/ 257-1083 (FAX겸용)